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과 발전



이상규(고신대학교 부총장, 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서론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둘째는 이 신학이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고 수용되었는가를 해설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16세기 개혁운동의 결과로 생성된 개혁주의가 루터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설명하고 개혁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192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이 어떠한가를 밝히고 이런 과정에서 칼빈주의 신학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한국에 소개되고 가르쳐져 왔던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¹⁾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교회(Reformed church)는 츠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스위스에서의 개혁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독일의 루터교회(Lutheran church)와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다. 개혁교회는 독일, 화란, 프랑스 등

1)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이나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관해서는 김명혁, “세계개혁교회와 한국장로교회의 신학,” 『신학정론』 제13권 2호(1995. 11), 380-414를 참고할 것.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런 개혁교회의 신학을 보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한다. 개혁주의²⁾란 넓은 의미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라는 말은 츠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사상을 루터의 그것, 곧 ‘루터파’(Lutheran)와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루터주의와 개혁주의

루터파(Lutheranism)나 개혁파는 다 같이 로마가톨릭의 사제주의(司祭主義, Sacerdotalism)를 비판하고 개혁했지만, 개혁파는 루터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점은 로마교의 ‘전통’(tradition)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그 경계선이 뚜렷해진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 루터는 ‘전통’의 폐기에 대하여 칼빈만큼 철저하지 못했다. 따라서 루터교에는 로마교적 잔재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지만, 개혁교회에는 로마교의 잔재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디아포라(diaphora)와 아디아포라(adiaphora)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견해차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존 머리(John Murry)는 이것을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라고 불렀다. 규정적 원리란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간섭받은 영역’을 의미한다.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다. 그

2) 현대 서양 언어에서 ‘개혁 교회,’ ‘개혁 신앙’ 혹은 ‘개혁사상’이란 말은 있어도 ‘개혁주의’라는 말은 없다. 영어로는 그냥 Reformed로, 독일어에서는 Reformiert로, 그리고 화란어에서는 Gereformeerd로 쓰고 있을 뿐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주의(主義)’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지만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된 것은 중국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리폼드’(Reformed)라는 말은 ‘개혁 신앙’(Reformed Faith) 또는 ‘개혁 신학’(Reformed Theology) 등과 같이 특정한 신앙과 신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중국인들이 리폼드(Reformed)를 ‘개혁주의’(改革主義)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를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러나 성경은 이 원리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³⁾ 바트부르그(Wartburg) 성에 은거해 있던 루터는 1522년 3월 비텐베르그로 돌아온 후 8편의 연속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서 그는 복음(福音), 율법(律法), 이신득의(以信得義) 등은 디아포라(diaphora)로 보았으나 예배의식, 성상, 성직자의 예복 등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로 간주하였다. 그는 디아포라(본질적인 것)는 어느 시대에서도 개변될 수 없는 ‘규범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아디아포라(비질적인 것)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비규범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교회 안에는 예배의식, 성직자의 복장 등을 포함한 로마교적 잔재가 남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모든 문제를 성경에 근거하여 철저한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로마교적 잔재를 일소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인톤은 개혁주의란 반사제주의(反司祭主義)일 뿐만이 아니라 루터주의의 개혁으로 보았다. 그래서 베인톤은 “개혁교회라는 말은 츠빙글리와 칼빈을 따른 스위스, 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교회들을 가리킨다. 개혁이란 말은 그들이 루터주의를 다시 개혁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즉 개혁이란 종교개혁의 개혁을 의미한다.”⁴⁾ 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란 루터주의보다 더 철저한 성경중심적 신학이

3)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문제를 1장 6항에서 다루고 있다. ‘규정적 원리’와는 반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을 아디아포라(adiaphora)라고 말한다. 이것을 불간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시에 예배드릴 것인가, 예배 시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예배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여기 속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카이퍼(R. B. Kuiper)는 ‘성화된 상식(sanctified common sense)’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에 비해 아디아포라의 영역이 훨씬 적었다. 시편송의 문제는 좋은 예가 된다. 루터는 스스로 곡(曲과) 가사를 만들어 불렀고, 그의 후예들도 그러했다. 그래서 루터교는 그 후 2세기 동안 교회음악에 영향을 끼쳤고 케를송의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찬송 가사를 받아드리려 하지 않았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감으로 주신 시편의 노래, 곧 시편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없으며, 따라서 이것 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음악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 예수님께서도 만찬을 잡수시고 시편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향하셨다는 기록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시편찬송』(Geneva Psalter)에서 시편 150편을 노래하도록 했고, 그 전통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후예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예배에서의 음악을 루터는 아디아포라로 보았으나, 칼빈은 디아포라로 보았다. 이상규, 『헬라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한울출판사, 2006), 196.

4) R. Bainton, *The Age of the Reformation*, 39.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클로스터(Fred Klooster)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말했다.⁵⁾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과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개혁주의를 보통 칼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칼빈이 성경적 가르침을 해설하고 이 신학을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비록 츠빙글리가 칼빈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이었으나, 칼빈이 보다 선명히 이 신학을 해설하고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도 불리게 된 것이다.⁶⁾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체계가 보다 성경적임을 증명하고, 다른 신학활동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학을 교리화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고백이었다.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루터란과는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작성하였고, 화란의 개혁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알미니안주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도르트신조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벨기에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1563), 도르트신조(1619),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그 대소요리문답(1647) 등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은 신앙고백을 성경과 같이 절대화하지는 않으나 신조(信條)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국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권위로

5) 클로스터교수는 1978년 1월 6일 세계개혁교회연맹(WARC,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북미 및 카리비안 지역 신학분과위원회와, 1978년 1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알리에스 신학협의회(Reformed Ecumenical Synod Theological Conference)에 제출한 논문, "개혁신학의 독특성"(The Uniqueness of Reformed Theology)에서 개혁신학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Scriptural principle)이며 성경적 원리에 충실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성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성경적 원리란 '오직 성경만'(sola Scriptura)이 아니라 '모든 성경'(tota Scriptura)의 원리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Fred Klooster, "The Uniqueness of Reformed Theology,"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14, No. 1 (April, 1979), 39.

6) 개혁주의 신학 전반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을 참고 할 것.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한다.

개혁주의 신학의 몇가지 측면

이 개혁주의 신학을 평이하게 해설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사상으로 말하고 실제적 삶의 신학으로 강조해 왔는데,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적 삶을 간명하게 정리한 마디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중심(God-centered)이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16세기적 상황에서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하며, 인간을 특수한 위치에 두는 신학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 중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성경중심(Bible-centered)이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란 점을 강조한다. 성경 외의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신학의 원천일 수 없다. 로마가톨릭은 66권의 성경 외에도 제이의 정경이라고 말하는 일곱권의 외경과 성전(聖傳)이라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때로는 이것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 하여 성경 보다 우월한 권위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외경과 전통을 배격했다. 개혁주의는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한다”(Scripturae scriptura interpretum)는 원리를 고수한다.

루터나 칼빈 등 개혁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

학이 옳다는 점을 성경에 호소하였다. 개혁주의는 바로 성경중심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한다.

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건설이었다. 이것이 교회중심(Church-centered) 사상이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강조한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견적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고 하여 가견적 교회와 신국을 동일시하지만,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선택된 자들로 구성되는 우주적인 교회, 곧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적 교회(invisible church)를 말하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상의 교회, 곧 유형교회 혹은 가견적 교회(visible church)로 구분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개혁주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완전을 향한 추구를 경시하지 않는데, 이것이 교회개혁운동이다. 교회중심사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에서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적 삶을 추구하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힘쓴다.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conform)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transform)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개혁주의 신학을 복음주의,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와 혼동하거나 혼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개혁주의가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와 어떻게 다른 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복음주

의란 그 이름처럼 헬라이어 ‘복음’이란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미 16세기 개혁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 혹은 대각성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구체적으로 생성되었고, 20세기 후반인 1952년 조직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와 1974년의 로잔 세계복음화 위원회에 의해 보다 명료하게 발전된 신학을 의미한다. 복음주의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과 가르침을 중시하면서 전도나 선교를 강조하고, 신자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앙체계를 의미한다. 기독교의 근본교리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개혁주의는 동일하다. 그러나 개혁주의나 복음주의는 분리주의적 혹은 반문화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복음전도와 함께 신자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를 강조하는데, 이 점은 근본주의와 다르다. 복음주의 신앙은 사회에 대한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지만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감성주의라는 점이 그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에 무관심하고 이를 간과함으로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결국 이런 입장은 교회관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교회의 신앙전통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신자의 삶의 목표로 여긴다.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문화 변혁적 성격을 지닌다.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칼빈주의(Calvinism)는 개혁주의(Reformed)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약간의 개념상의 차이는 있다. 16세기에는 칼빈의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했지만, 개혁주의라는 말은 츠빙글리와 칼빈의 개혁운동, 곧 스위스의 개혁운동을 독일의 루터의 그것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는 칼빈만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사상을 통

칭하여 칼빈주의라고 칭하였고 이 신학체계는 17세기 화란에서 보다 분명히 체계화되었다. 영국에서 칼빈주의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바탕을 둔 장로교회를 통해 체계화되어 미국으로 전수되었고, 프린스턴 신학을 통해 석명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우리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양사회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말보다는 칼빈주의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칼빈 이후 최대의 칼빈주의자로 알려진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행한 스톤강좌(The Stone Lectures)에서 행한 강연으로 엮은 『칼빈주의 강의』(Lectures on Calvinism)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개혁주의(改革主義)라는 말이 있지만 영어나 독일어, 화란어에는 “개혁주의”라는 용어자체가 없다는 점만 보아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영어나 독일어, 화란어에서는 단지 ‘개혁 된’(Reformed, Reformiert, Gereformeed)이란 단어만 있을 뿐이다.

찰스 하지(Charles Hodge)는 칼빈의 이름에서 유래된 칼빈주의라는 용어 대신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자였던 어거스틴의 이름을 따라 ‘어거스틴주의’(Augustinism)이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한 일이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칼빈주의라는 명칭보다는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칼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그의 신학의 중요한 축이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칼빈의 이름을 따라 칼빈주의라고 칭하기 보다는 차라리 개혁주의라는 이름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칼빈주의는 한국장로교회의 중심신학으로서 신학과 교리, 예배와 생활 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칼빈주의의 전파

성경관과 구원관, 그리고 국가관과 성례관 등에서 천주교의 사제주의(Sacerdotalism), 독일의 루터주의(Lutheranism)와 구별된 칼빈주의

는 17세기 화란에서 일어난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와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예정과 선택, 인간의 무능력 등 구원관에 있어서 보다 분명히 정립되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칼빈주의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이 신학사상은 미국으로 이식되었다. 18세기 대륙의 합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칼빈주의는 심한 공격을 받았으나 19세기 후반기에는 칼빈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화란의 흐린스터(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등에 의해 일어난 이 운동은 북미 대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의 칼빈주의 신학은 1812년에 설립된 프린스턴신학교를 통해 교수되었고,⁷⁾ 19세기 후반기부터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1930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한국 신학을 주도한 이는 선교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칼빈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2.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

1920년대까지를 ‘초기’라고 말할 때,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은 사실 선교사들의 신학을 의미했다. 초기 선교사들, 예컨대, 평양신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이었던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교수였던 곽안련(Charles A. Clark),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역시 교수였던 이눌서(W. D. Reynolds), 구레인(J. C. Crane) 등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선

7) 구 프린스턴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대한 분석과 이 신학에도 스코틀랜드의 상식철학(Common Sense Philosophy)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ohn C. Van 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A Study in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 (Marlton, NJ: Mack Pub. Co., 1978).

교초기부터 이들에 의해 칼빈주의라는 용어나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흔적이 없다. 또 한국인들에 의해서도 한국교회 초기의 신학이 보수주의(간하배), 보수적 복음주의(김명혁), 혹은 청교도적 보수주의(박아론), 극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전성천)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교회 신학이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적 범주 안에 있으나, 그 신학의 역사적 배경이나 개념을 달리하는 신학적 경계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수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혹은 칼빈주의가 혼용되고 있고, 때로는 세대주의 까지도 같은 범주로 혼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학개념 혹은 신학사상의 비구체성 혹은 모호성은 한국교회가 그런 신학적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선교사들의 신학적 훈련의 미숙일 수 있고, 또 1920년대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근본주의 논쟁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적이 아닌 것을 통칭해서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초기의 선교사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미국복장로교 선교부(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의 총무였던 브라운(A. J. Brown)의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1911년 이전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전형적인 퓨리탄형의 선교사였다고 말하고, 이들은 신학과 성경 비평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적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했고 저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했다고 말했다. 또 1890년에 내한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64-1939)의 기록도 이와 유사하다. 그는 1909년 첫 25년간(1884-1909)의 한국선교를 회고하면서 “선교부와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투철한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든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열성적인 복음정신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⁸⁾ 고 했다. 콕안런(Charles A. Clark)도 “초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스코틀랜드의 언약과

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믿고 가르쳤던 것처럼 성경을 믿었고 또 성경을 믿고 있다. 그들은 이 신앙을 한국교회에 굳게 심어주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드리지 않는 어떤 한국어 책들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다.”⁹⁾ 고 했다.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에 대해 분명한 용어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칼빈주의적 성격이 깊었다는 점은 분명했다. 이 점은 1907년 독노회의 조직과 함께 채택된 12개 신조에 대한 백낙준의 평가에 드러나 있다. 백낙준은 12개 신조는 개혁파교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하고, “이 신앙고백은 철저한 칼빈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¹⁰⁾ 사실 12개 신조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지침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척도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성격의 신조였다. 이런 신조를 채택했다는 점은 당시 선교사들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한다. 또 블레어(Herbert E. Blair)는 평양신학교의 신학을 “역사적 칼빈주의 배경을 지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표준을 수납하며, ... 구 프린스톤 신학에서의 경우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치 않고 받아드렸다.”고 했다.¹¹⁾ 간하배는 평양신학교의 교수 중 마포삼열, 곽안련, 이눌서의 영향력이 지대하였음을 언급하고, 이들의 칼빈주의적 입장 때문에 “칼빈주의는 평양신학교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배양되었다.”고 말했다. 칼빈주의는 적어도 1930년대 이전의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신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이 ‘칼빈주의’라는 용어로 분명하게 지칭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 The mission and the church have been marked preeminently by a fervent evangelistic spirit, a thorough belief in the Scriptures as the Word of God, and in the Gospel message of salvation from sin through Jesus Christ(H.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Part I",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Vol. XXIX No. 1, Nov, 1966, 4).

9) C.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CLS, 1937), 121.

10) 백낙준, 『한국개신교선교사』, 376.

11) Repo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121.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한국에서의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를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은 선교사로는 함일돈, 한국인 신학자 혹은 목회자로는 박윤선, 이근삼, 신복윤, 이종성 교수, 그리고 김성환, 한병기 목사 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함일돈, 박윤선, 이근삼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함일돈(咸日暉, Floyd E. Hamilton, 1890-1969)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수학하여 신학사(BD) 및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하고, 1920년 1월 4일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 하였다.¹²⁾ 메이첸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변증학 분야와 창세기 연구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학자였다.¹³⁾ 그래서 그는 내한 후 곧 평양신학교 강사로 변증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고, 1926년부터 1936년까지는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봉직하였다. 그는 당시로는 보기 드문 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재능은 선교지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저술과 신학교육을 통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특별히 그의 영향은 평양신학교와 평양 숭실대학 학생들에게 뚜렷이 나타났고, 이들을 통해 1930년대의 보수주의는 장로교회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¹⁴⁾ 일제의 강압으로 1941년 한국을 떠났던 그는 1948년 5월 18일 성경장로교(Bible Presbyterian Church) 선교사로 다시 내한하여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일본으로 떠나기 까지 부산 고려신학교 교수로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5경, 주경신학, 그리고 변증학 분야를 강의하였다.

그는 “칼빈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신학지남』19권, 4, 5, 6호 (1937년 7, 9, 11월호)에 발표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의 칼빈주의라는 제목의 첫 논문이었다. 물론 그 이전인 1934년 『신학지남』은 칼빈 특집호를 엮어

12) H. A. Rhodes,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CUSA, 1884-1934*, 631.

13) 함일돈에 대한 자세한 논구는,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제9장(177-189)을 참고할 것.

14)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총신대학교 출판부, 1998), 98.

칼빈의 생애와 목회, 그리고 그의 신학에 관한 글을 발표한 일이 있으나,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체계에 대해 처음으로 소개했던 인물은 함일돈이었다. 뵈트너(L. Boether)의 책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이 박형룡에 의해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제목으로 역간된 때도 1937년이었다. 사실 함일돈은 해방 전에는 평양신학교와 송실학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교수했던 인물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종성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유형에 대해 말하는 중에 평양신학교의 신학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평양신학교를 시작하고 그 곳에서 수년간 가르쳤던 선교사들은 강력한 근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신학적 입장은 엄격한 근본주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학교 강의를 통해 한국인 목사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인물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그가 바로 『기독교신앙』의 기초라는 뉴욕의 하퍼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책의 저자인 함일돈이다. 대부분의 한국목사들은 선교사들로부터 근본주의와 칼빈주의가 기독교신학 중 최상의 체계라고 배웠기 때문에 근본주의와 칼빈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만일 한국에 신학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근본주의자이거나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장로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¹⁵⁾

이 글에서 이종성은 근본주의와 칼빈주의의 경계선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나 함일돈의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함일돈은 『기독교변증론』을 출판했는데, 이 책의 영문판 *The Basis of Christian Faith* 는 뉴욕의 하퍼출판사에서 1927년 출판되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서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변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전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칼빈주의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함일돈은 『진화론의 기초』(*The Basis of*

15) Jong Sung Lee, "Types of Church Leaders Today", *Korea Struggles for Christ*, (Seoul: CLS, 1973), 136-7.

Evolutionary Faith: A Critique of Theory of Evolution, London, 1931), 『천년왕국신앙의 기초』(*The Basis of Millennial Faith*, Eerdmans, 1941), 『현대사회에서의 개혁신앙』(*The Reformed Faith in the Modern World*, OPC, n.d.) 등의 저술을 남겼다. 함일돈은 『현대세계에서의 개혁신앙』이라는 책에서 “나는 칼빈주의자가 되지 않고 기독교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유일하고 진실된 기독교의 형태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칼빈주의가 포함하는 교리체계는 전체적으로 참된 유일무이한 체계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는 성경전체의 가르침에 근거한 유일하고 진실된 교리체계이기 때문이다. 비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전체적인 진리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가 믿는 기독교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의 기독교이며 따라서 다소 성경적 기독교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는 박윤선(1905-1988) 교수였다.¹⁶⁾ 그는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 도미하여 1936년 5월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이 학교는 프린스턴신학교의 신학적 변화에 반기를 들로 나온 윌슨과 메이첸 등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박윤선은 이곳에서 메이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평양신학교의 성경원어 강사로 일하다가 다시 도미하여 1938년 9월부터 1939년 11월까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성경원어와 변증학을 공부하였는데 이 때 그는 칼빈주의 신학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1946년 9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부산의 고려신학교 교수로 일했는데 이때는 그의 젊은 날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그의 생의 중요한 기간이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강의와 저술, 그리고 주석발간을 통해 한국교회에 칼빈주의 신학을 소개하고 체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가 고려신

16) 박윤선에 대한 더 자세한 논구는,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제6장(128-137)을 참고할 것.

학교 교수로 일한 14년 간 『파수군』지에 21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요한계시록, 공관복음서, 로마서,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시편, 요한복음 등 7권의 주석을 집필하였다. 1963년부터 1974년, 1979년부터 1980년 11월까지의 총신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신학지남』에 4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1980년 합동신학교로 옮겨간 후 1988년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합동신학교 교수로 일하면서 『신학정론』지에 1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⁷⁾ 특히 그는 1952년과 1953년 “칼빈주의”라는 제목의 연재 논문을 『파수군』에 기고하였는데, 이 글은 칼빈주의 신학체계를 소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는 1959년 김진홍과 더불어 헨리 미터(Henry Meeter)의 칼빈주의의 기본사상(*The Basic Idea of Calvinism*)을 『칼빈주의』라는 이름으로 역간 했다. 박윤선은 “칼빈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헨리 미터의 사상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칼빈주의 학자로서 박윤선의 생애와 사역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기는 그의 화란 유학이었다. 비록 유학기간은 1953년 10월부터 1954년 3월말까지 6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나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을 접하고 이를 한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주로 신약학을 공부하였는데 그는 이미 독학으로 화란어를 익혔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독서와 연구는 그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칼빈주의 신학을 소개하는데 커다란 유익을 주었다. 그래서 1954년 이후 그의 글들 속에는 화란 신학자들의 글들이 보다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그는 하지(C. Hodge), 메이첸(G. Machen), 워필드(B. B. Warfield) 등 미국의 칼빈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스킬더(K. Schilder), 크레이다너스(G. Grijdanus) 등 화란의 칼빈주의자들의 신학과 전통을 소개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강의를 통해서만이 아

17) 합동신학교 출판부 편,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174.

나라 주석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79년 신구약주석을 완간하였는데(증보, 수정판은 1987년까지 완간 되었다) 이는 총 11,602쪽에 달하는 것으로 주석집필을 시작한 후 약 50년간 해마다 240쪽의 분량을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당시까지 그는 신구약주석을 완간한 한국의 유일한 학자였는데, 그는 6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주석을 집필하였다고 했다. 그 첫 세 가지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저서를 최대한 참고한다는 것이었다.¹⁹⁾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칼빈주의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엿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권의 저작을 남겼지만 그는 그의 저술과 설교, 삶에서 일관되게 칼빈주의 신학을 신봉하였다. 박윤선은 국제개혁주의신행협회가 조직된지 4년 후인 1957년 1월 김진홍, 이상근 등 한국인 교수들과 서아도(A. Boyco Spooner), 하도레(Theodore Hard) 선교사 등과 함께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점은 한국에서의 칼빈주의 문화운동에 대한 그의 일념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또 한사람의 칼빈주의자는 고려신학교 혹은 고신대학교의 이근삼(1923-2007) 교수였다. 그가 활동했던 1960년대 이후는 칼빈주의 신학체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던 시기였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 칼빈 혹은 칼빈주의에 관한 문서가 저술 혹은 역간되었다. 이근삼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칼빈주의자였다. 이종성은 칼빈에 대한 논문과 저술, 그리고 역서를 출판하는 등에 있어서는 이근삼보다 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으나 그를 적어도 워필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칼빈주의자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종성은 한국인으로써 최초의 칼빈전기 『칼빈, 생애와 사상』(예장총회교육부, 1968, 증보판, 대한기독교서회, 1978)를 출판하

18) 합동신학교 출판부 편,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173.

19) 심근식, 『박윤선목사의 생애』(영문, 1996), 173-7.

고, 위대한 칼빈학자인 빌헬름 니이젤(Wilhelm Niesel)의 『칼빈의 신학』(*Die Theologie Calvins*, 대한기독교서회, 1973)을 역간하고 또 휴 커(Hugh T. Kerr)가 편집한 기독교 강요 요약서(*Institute in Compend*)를 『기독교강요선』(대한기독교서회, 1960)이란 제목으로 역간하는 등 칼빈연구에 기여하였다. 그를 칼빈학자라고 볼 수는 있으나 칼빈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근삼은 1951년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카버난트신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시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1962년 귀국하여 고려신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칼빈주의적 신학과 삶의 체계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1963년 “칼빈주의와 생활”(『개혁신의』, 1963. 10), “칼빈주의와 학문”(『개혁신의』, 1964. 4) 등을 시작으로 칼빈주의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72년에는 『칼빈. 칼빈주의』라는 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해 헨리 반틸(Henry R. Van Til)의 『칼빈주의 문화관』(*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을 역간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로 혹은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없었는데, 이 책은 칼빈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적 사명을 논구한 책으로서 한국 기독교의 문화적 책임을 고양시켜 주는 일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그는 『개혁신의 신학과 교회』(1985), 『개혁신의 신앙과 문화』(1991) 등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그간 칼빈주의 신학을 석명하고자 했던 그의 학문과 삶의 여정에서 나온 결창들이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칼빈주의 학자들 외에도 도이에벨트(Herman Dooyeweerd), 벨렌호벤(D. Vollenhoven), 코넬리우스 반틸(Conelrius Van Til) 등의 사상을 소개하였는데 그는 신학과 교리로서의 칼빈주의만이 아니라 칼빈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광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칼빈주의적 소명을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칼빈주의는 너무도 작은 하나님과 너무도 좁은 비전을 가졌다고 결코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적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타나고 알려진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에 대한 신앙이다. 루터파가 추구하는 영광스런 하나님과 개인영혼의 행복을 위한 경건주의 욕망과 웨슬레안주의가 목적하는 개인적 거룩에 비교해 볼 때, 개혁주의 전통의 궁극적 관심은 개인과 그의 구원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능가하고 궁극적으로 그 관심과 소망은 국가와 문화, 자연과 우주의 넓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Kingdom theology)이다.²⁰⁾

이러한 그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는 학문에 있어서 왕적 소명을 인식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대학운동을 주창하기도 했다.

결론을 대신하여: 칼빈주의 이해, 평가와 반성.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사상이 비록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기는 했으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기초한 칼빈주의적 성격이 강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일돈, 박형룡, 박윤선, 이근삼, 신복윤 등에 의해 칼빈주의 신학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교수되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초기의 한국선교사들의 신학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다 정교한 의미의 칼빈주의적이었던가, 그리고 오늘의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의 절대다수의 교회(단)들이 칼빈주의 신학과 생활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해한 칼빈주의 신학이 일반적 의미의 보수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선교사이기도 했고 후일

20) 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영문, 1991), 96-97.

21) 간하배, 『현대신학 해설』(개혁주의 신행협회, 1978), 194.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간하배(H. Conn)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이 보수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었다²¹⁾고 진단했는데, 그것은 칼빈주의와 근본주의 혹은 칼빈주의와 보수주의 등 동일한 범주에 있으나 신학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신학이념의 경계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 곧 한국교회가 처한 그 역사적 삶의 자리에서 문화 변혁적 신앙과 삶을 추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서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동안 한국교회는 칼빈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근본주의적 성향이 짙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는 칼빈주의를 말하는 교회와 신학 중에서도 세대주의적 경향마저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사상은 “보수적 근본주의적 사상인 동시에 칼빈주의 신학사상이 혼성되어 구성된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사상”이라고 말한 간하배의 말은 이해할 만하다.

비록 신학적 개념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칼빈주의 신학은 한국교회의 주도적인 신학으로서 한국교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박형룡과 박윤선, 그리고 이근삼의 활동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그리고 기도와 경건중심의 신학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20세기 후반의 세계교회의 중심으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동시에 21세기 한국교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신학적 일관성이나 신

학전통에 대한 관심 없이 목회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은 자칫 주관주의나 독단주의, 혹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학 없는 교회나 교회 없는 신학, 그 양자는 신비주의나 독단주의 혹은 철학적 사변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

칼빈주의를 말하는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칼빈주의 신학전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신학적 성숙을 이루는 길이다. 교회적 전통으로부터의 단절은 독단주의나 신비주의, 혹은 기복주의적 민간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서구의 교회 역사와 신학적 유산을 헤아려 보는 긴 안목은 독단이나 편협한 민족주의 혹은 토착적 신비주의를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신학과 그 세계관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